

# “올해도 전진”...탱크 최경주, KPGA 최고령 2연패 도전

### SK텔레콤 오픈 출전...장유빈·배상문·박상현·배용준 등 총출동 최경주 “타이틀 방어 도전 자체가 의미있어...좋은 모습 보이겠다”

한국 골프의 전설, ‘탱크’ 최경주(54·사진)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고령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최경주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 링크스 골프클럽(파71·7326야드)에서 열리는 2025 KPGA SK텔레콤 오픈 2025(총상금 13억원)에 출전해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2003년, 2005년,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지난해에는 극적인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를 친 최경주는 자신보다 13살 어린 박상현과 2차 연장 끝에 승리해 정상에 올랐다.

특히 1차 연장이 백미였다. 최경주는 두 번째 샷이 물에 빠진 것처럼 보여 암담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공은 개울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섬 잔디 위에 가까스로 살아났고, 최경주는 이를 파로 막으면서 우승의 불씨를 살렸다.

최경주의 ‘아일랜드 샷’은 지난해 KPGA 투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경주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2012년 10월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무려 11년 7개월 만에 KPGA 투어 대회를 제패했다.

그는 이번에 우승하면 지난해 세웠던 역대 최고령 우승을 경신하며 통산 3번째 KPGA 투어 타이틀 방어에도 성공한다.

그는 2007년과 2008년 신한동해오픈, 2011년과 2012년 CJ 인비테이셔널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1970년 5월 19일생인 최경주는 지난해 54번째 생일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올해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는 생일 전날인 18일에 열린다.

지난해까지 SK텔레콤 오픈 대회에 23차례 출전해 21차례 컷 통과한 최경주는 대회 최다 출전 및 최다 컷 통과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최다 버디 기록(319개)도 갖고 있다.

최경주는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우승보다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많은 경쟁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장유빈

이다. 지난해 KPGA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 등을 석권한 뒤 LIV 골프에 진출한 장유빈은 2024년 11월 KPGA 투어 챔피언십 이후 약 6개월 만에 KPGA 투어에 선을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1승씩 거둔 배상문과 오랜 기간 해외 무대에서 뒀던 강성훈도 출전한다.

2012년과 2022년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한 김비오는 대회 3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그는 2022년 대회에서 대회 최스타 우승(265타)과 최다 타수 차 우승(7타) 기록도 세웠다.

2015년과 2017년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한 최진호도 3번째 우승을 노린다.

최진호는 현재 통산 상금 29억8727만6075원을 기록하며 4위를 달린다.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30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

통산 상금 순위 5위인 김비오(28억9774만6347원)도 30억원 돌파를 노린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6000만원이다.

2009년 우승이자 지난해 최경주에게 아깝게 우승 트로피를 내준 박상현도 출전한다.

지난 11일 KPGA 클래식에서 통산 2승을 거둔 배용준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바라본다.



/연합뉴스

## ‘광주 출신’ 손현호, 아시아역도선수권 용상 금 ‘번쩍’

### 남자 81kg급 금 1·동 2개 획득

광주 출신 손현호(25·국군체육부대)가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손현호는 지난 12일 중국 장산 후산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남자 81kg급 경기에서 인상 157kg과 용상 200kg, 합계 357kg을 들면서 용상 1위, 인상 3위, 합계 3위를 차지했다.

용상에서 손현호는 뒤통양(중국)과 같은 무게 200kg을 들었지만 중국보다 앞선 1차시기에 성공하며 금메달을 얻을 수 있었다.

인상은 162kg을 든 뒤통양과 161kg을 성공한 리즈키 주니안시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합계에서는 뒤통양이 362kg, 주니안시아가 358kg을 기록하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가졌고 손현호는 357kg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광주 송정중과 정광고를 졸업한 손현호는 오는 7월 제대 후 광주시청 역도팀으로 복귀한다.



손현호(가운데)는 12일 중국 장산 후산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남자 81kg급 경기에서 용상 200kg을 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역도팀 제공>

## 광주서석중·조선대, 전국 검도선수권 단체전 우승



광주서석중은 제47회 전국 검도선수권대회에서 펼쳐진 상인전종과의 결승에서 2-1로 이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서석중 검도팀 제공>

광주서석중과 조선대가 제47회 전국 검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주 서석중은 상인전종과 맞대결을 펼쳤다.

선봉 권민수와 2위 문윤은 득점없이 비겼고, 중견 윤찬희는 박효관에게 0-2로 패했다. 부장 허경도는 고중수를 상대로 2-0으로 승리했고, 주장 옥하준이 김민상을 2-1로 제압하며 최종 스코어 2-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에서는 윤찬희와 옥하준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다.

조선대는 충북대와 결승을 치렀다. 조선대 선봉 김민수가 강주원을 2-1로, 2위 함우진이 도원경을 2-0으로 이겼다.

중견 정우진이 성민제에게 0-1로 패했으나 부장 안태준이 윤두현을 2-0으로 승리했다. 이후 주장 조도현이 김상혁에게 0-2로 졌지만 최종 스코어 3-2로 금메달을 따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남 김해서 개막



### 광주선예학교 김유나 역도 3관왕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3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열고 16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회는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등 17개 종목

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체·시각·지적(발달)·청각·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출전한다.

광주에서는 123명(선수 76명, 임원·관계자 47명), 전남에서는 265명(선수 147명, 임원·관계자 118명)이 대회에 나선다. <사진>

한편 대회 첫날인 13일 광주선예학교 김유나(1년)는 역도 여자 중등부 60kg급에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파워리프트종합 모두 1위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했다. /김대인 기자 kdi@

## 전남·경북 어르신들 생활체육으로 우호 다진다

### 16일까지 영광서 친선경기

‘202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가 14일부터 16일까지 영광에서 이뤄진다.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동호인 80명이 전남을 찾는다.

경북선수단은 전남선수단과 함께 게이트볼, 탁구, 그라운드골프, 소프트테니스, 파크골프,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참가한다.

첫날인 14일에는 영광스포티움에서 환영식을 열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과 환영만찬 등으로 친목을 다진다.

15일에는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하고, 종목별 친선경기를 갖는다. 행사 마지막날인 16일에는 불갑사와 불갑산생태공원을 탐방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대인 기자 kdi@

## 일본 국대 시마무라 하루요, AI페퍼스 합류

### 와일더 부상으로 대체

AI페퍼스가아시아쿼터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스테파니와일더(29)의 부상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 국가대표 시마무라 하루요(33)를 교체 영입했다.

신장 182cm 미들블로커 시마무라는 2010년부터 NEC RED Rockets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향후우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국제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로, 미들에서 블로킹과 공격뿐 아니라 세

심한 플레이에서도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마무라 선택 이유를 밝혔다.

한편 페퍼스는 장위와 재계약이 불발되며 생긴 높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4월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드래프트에서 195cm 아웃사이드 히터 와일더를 선택했다. 와일더는 지난해 11월 GS칼텍스 소속으로 흥국생명과의 경기하던 중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드래프트 계약 당시 와일더 에이전트는 이달 기본적인 훈련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재활과정에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페퍼스는 교체를 결정했다. /김대인 기자 kd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류현자 개인전